

“한섬원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연도에 꼭 필요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2022년 12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한 여수 연도는 아름답고 다양한 자원을 가진 섬이지만 여느 섬과 같이 주민들의 고령화와 불편한 교통 문제로 여러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여수 연도의 김동근 이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이달의 섬 선정지 여수 연도리

김동근
이장 인터뷰

보물섬 연도, 교통 문제와
미흡한 응급의료체계로 몸살

Q. 연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연도는 102종의 주요 식물이 자생하는 곳으로 열두 가지 설화와 전설을 갖고 있는 이야기의 섬이기도 합니다. 자연 방풍이 유명하고 전복, 감성돔, 볼락, 도다리 등 다양한 먹거리가 유명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소하게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도는 절경이 아름다운 섬, 풍부한 자원을 가진 보물섬입니다.

Q. 이장직을 맡고 계신데 고충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A. 아무래도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 연도항까지, 뱃길로 약 2시간 소요되는데요. 하루에 두 번만 배가 뜨는데 연도가 가장 남단에 붙어 있는 섬이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배가 오기 힘들어 언제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잦은 풍랑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고, 태풍이라도 부는 시기에는 꼼짝없이 섬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섬의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70% 가량은 나이 드신 분들이고 연평균 5건 이상 응급 환자가 발생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일 때는 배를 기다릴 여력이 없어 헬기나 해경정을 통해 육지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2시간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다가 사람을 잃는 일, 상상이 가시나요.

이 때문에 모든 주민들은 헬기가 여수 지역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빠른 선박 등의 이동 수단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송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고요.

지금 교량 건설 사업 관련하여 예산 절반 이상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해당 부분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해서 교량 건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찾고 싶은 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Q.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의 ‘이달의 섬’,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연도가 선정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새롭게 문을 연 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곳에서 주목해주셔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 분들이 찾아주시길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가고 싶은 섬’을 접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에 선정되고 섬의 미래가 밝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민들이 2020년부터 사업 선정을 위해 힘을 모은 바 있는데요. 가고 싶은 섬으로 공식적으로 선정이 되어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연도도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좋은 섬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Q. 연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A.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지만 가고 싶은 섬을 넘어 ‘찾게 되는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섬의 지속가능한 소득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 문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많지 않고, 또 지리적인 여건상 특별한 해상 사업도 어렵고 해서 주민들의 고민이 컸는데요.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면 주민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A. 임기가 일 년 정도 남았는데요. 주민 분들에게 크게 바라는 점은 없고, 앞으로도 마을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을 위한답시고 너무 많은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의 안전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득원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